

[제2018- 호]

		<h1>보 도 자 료</h1>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7 쪽(작품이미지 포함)	
배포일시	2018. 9. 10(월)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전시		
연락처	323-936-7141/exhibition@kccla.org	담 당 자	최희선 (323-936-3014)		

미 주류미술관과의 교류전
대박 (Dae-Bak Super Cool)

- ▶ 전 시 명 : 대박 (Dae-Bak Super Cool)
- ▶ 일 시 : 2018.9.22(토) - 11.10(토)
- ▶ 개 막 식 : 2018.9.22(토) 6:00pm
- ▶ 장 소 : Torrance Art Museum
 3320 Civic Center Dr, Torrance, CA 90503
- ▶ 주 최 : LA한국문화원 / Torrance Art Museum
- ▶ 문 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4 / 토렌스미술관310-618-6388
- ▶ 참여작가 : 권오상, 홍정화, 데이브 장, 광영준, 권이환, 이강승, 백남준,
 박경률, 박성원, 유해나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과 토렌스미술관(관장 맥스 프레스닐Max Presneill)은 2018년 9월22일 부터 11월10일까지 토렌스뮤지움에서 공동주최로 “DaeBak (Super Cool)”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미국 내에서 한국미술이 그다지 많이 소개되고 있지 않아, 토렌스뮤지움과 함께 한국의 현대 미술을 미 주류사회에 소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토렌스미술관 프레스닐관장은 2016년 한국문화원과 함께 한국을 다녀 온 후 한국과 한국미술에 대하여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전시

타이틀< DaeBak (Super Cool)> 역시 그의 작품이다.

LA한국문화원 김낙중원장은 “ 이번 전시를 기획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대형 미술전시는 아니지만 주류미술관과 공동으로 하는 작업으로 한국미술을 미주류에 소개한다는 자부심으로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문화는 다른 어떤것 보다 더 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문화를 통한 외교, 문화를 통한 경제는 더 단단한 힘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미 현지인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알려주고 이해시킴으로서 미국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작가와 LA 및 한국에 기반을 둔 재미한인작가들로 구성된 10명의 그룹전시로, 첨단 테크닉과 작가들의 예리한 시선으로 바라본 사회와 정치에 대한 작가 개념이 강조된 작품들을 준비하였다.

이번 전시회에 포함된 작품들은 회화에서 조각, 설치에 이르는 다양하고 신선한 작품들로, 백남준의 비디오 작품에서부터 가부장제 구조와 전통 사회에 대한 거부감, 과학기술을 이용한 야심찬 새로운 건축물, 문화의 다양성 및 세계화, 사회적, 정치적 이슈, 그리고 일상의 소소함을 담은 다양한 실험적인 작품들이 선보인다.

전시 개막식은 9월22일 6시에 시작되며 관람은 무료이다. 자세한 문의는 LA한국문화원 323-936-3014 / 토렌스미술관 310-618-6388로 연락하면 된다.

1. 권오상 (한국)

하이드파크 2003 C-prints mixed media 54 x 53 x 35 inches



권오상작가는 사진과 조각 두가지 형식을 혼합하여 장르의 경계를 허물은 작가로 사진조

각가로 불리운다. 가장 오래되고 그를 유명하게 만든 데오도란트 작품으로 조각이라는 무거운 작품을 사진이라는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 낸다. 실제의 인물이나 군상들을 실제 크기의 사진으로 수없이 다양한 포즈로 찍어 스트로폼으로 골격을 만든 후 찍어낸 사진으로 조각품을 제작한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실제와 허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2. 흥정화 (LA)

가벼운 발걸음으로 (With light Step) Acrylic on canvas 72x72 inch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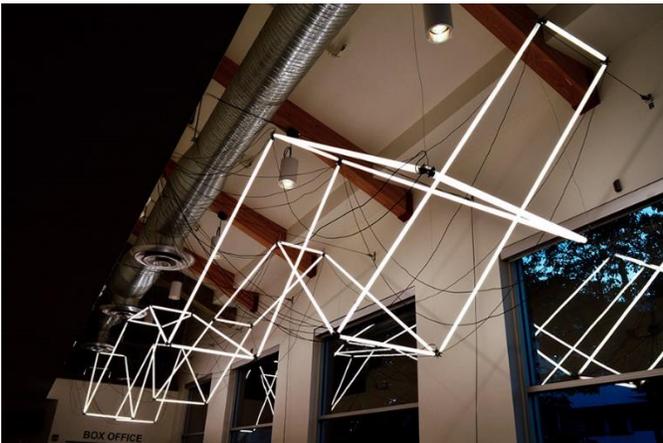


흥정화작가는 가부정적인 사회관습과 억압된 여성의 정체성을 작품 속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흥정화는 아크릴를 사용하면서 전통적이면서도 섬세하고, 수채화기법을 사용하였다. 홍익대학교를 거쳐 라구나 칼리지 오브 아트 앤 디자인을 졸업하였다.

3. 데이비드 장 (LA)

조건적 이행 (Conditional Transitive)

fluorescent bulbs, ballast and electrical wires 492"x100"x72"(dimensions variable)



서울 출생이며 13 세때 이민 온 1.5 세 작가이다.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칼리지 오브 비주얼 아트를 졸업하였다. 그는 생존, 혹은 스스로 '삶의 전술'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것이다. 생존은

지속적인 질서의 변화와 유지가 필요하며 그 질서는 에너지를 동력으로 하고 있다. 이런 변화와 전환의 일정한 운동성을 표현하는 설치 작업들을 주로하고 있다

4. 곽영준 (LA)

돌연변이 운동기구 걸이 (Mutant Exercise Tool Rack), 2016

Welded steel, acrylic nails, found objects (shake weight, hula hoop, stretch band, crystal dumbbell, tennis ball, etc.), paint. 56 x 27 x 52 inches



곽영준은 뉴욕 퀸즈에서 태어나 LA에서 활동하는 이민 2세이다. 곽영준은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녀의 조소작품에서는 물체의 구조, 형태, 재료 등을 재해석한다. 돌연변이 살롱과 이동 미용실의 설립자이며, 동성애자, 트랜스젠더집단과 실험적인 공연을 한다. 더 브로드, 레드 캣, 해머뮤지움 등에서 퍼포먼스와 전시를 하였다.

5. 권이환(한국)

누나 elder sister

F.R.P Acrylic Hand Painted 107 2/5 × 12 × 9 inches



권이환은 경원대학원에서 환경조각을 전공하였다. 그는 사진을 찍은 후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긴다음 다시 2D, 3D로 사실적이면서 허구적인 입체 형태로 제작한다.

6. 이강승(LA)

Untitled (A rioter throwing stones)



이강승작가는 서울에서 태어나 성장하였으며,칼아츠를 졸업했다. 이강승작가는 드로잉, 비디오, 설치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며, 현재는 작가로 활동하며 칼아츠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7. Nam June Paik

Bone again 1991 Painted Bronze, TV Monitors, Antennas, Plug
17x23 inches



1932년 한국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전위예술가이다.

8. Kyungryul Park

Vulnerable Drawing No 650, 2013

Oil pencil, oil pastel, acrylic on canvas 94 94.5x226inches



한국에서 활동하는 박경률작가는 홍익대학,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첼시 칼리지오는 아트 앤 디자인에서 MA 를 받았다. 박경률은 캔버스안에 있는 수많은 오브제들은 어린 시절 부친을 따라 세계 곳곳을 유목민처럼 성장하여 살아오면서 겪어야했던 적응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한다. 작품 속의 오브제들은 절대적이라 생각했던 규범이나 관습들이 반드시 절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서 세상과 소통하는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고자 한다.

9. Soung W. Park

Aesthetics Discovered of Modern Architecture #1 40x60inches



한국에서 태어나 1970년도 부터 신문사 사진기자로 오랜세월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LA와 한구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사진과 현대의 테크닉이 결합된 디지털사진으로 볼 수 있으며, 작품 속에서 무의식의 캄구를 넘어 자연 속에 담겨있는 물질의 서그오질을 컴퓨터테크닉을 이용하여 건축의 구조를 추상적 이미지로 표현했다.

10. HaenaYoo

Guttin'n Out, 2017



유해나 작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파사데나 아츠센터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현재는 LA에서 설치작가로 활동중이다. 노상상점을 묘사한 설치작품의 재료는 한인타운, 중국타운, 알라메다 스왓밀에서 구입한 것들로 제작었다. 이 작품에서 그녀는 그들의 사회적 위치, 절박한 환경, 생존을 위한 삶 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노상상점이 암시하는 것은 과거 보편적이었던것이 전문화, 및 대형화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의 삶을 표현하였다.